

# 버락 6월

## 목 차

- 제9기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 장애인 당사자와 인권
- 약의 연대기 관람 후
- 팬텀 : 한국배우들이 최초로 연기 한 오페라의 유령
- 현실 에세이
- 장애인파파라치
- 회원가입
- 광고



제9기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 장애인 당사자와 인권

박남주

2008년 제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장애인당사자교육을 진행해 온 강북센터가 2015년 6월 16일 제9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개강을 맞이하였습니다. 한국을 떠들썩하게 강타한 메르스 때문에 한일 국제세미나도 취소하고 모든 행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사업 만큼은 꼭 진행을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강행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1회씩 두 달 동안 있었던 수업을 매주 화, 금 일주일에 2회씩 한 달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포스터와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수강생을 모집하였습니다. 드디어 6월 16일 개강일. 우려했던 바와 다르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1강에 참여해 주어서 강사로 오신 한국DPI 김대성회장님도, 강북센터 활동가들도 신이 나서 수강생들께 연신 고맙다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메르스 공포를 조금이라도 덜고자 손세정제와 마스크, 물티슈, 휴지 등 알뜰하게 비품을 챙겨 준 강북센터의 막내들 선아씨와 소연씨가 제일 수고한 것 같습니다.



2강 때는 장애인보장구의 역사와 종류라는 주제로 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대표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전에 소통이 잘 된 편이라서 강의준비에 무리는 없었으나 질의응답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수강생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질문을 받는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많이 알려진 아동 보조기구 외에 일상생활 보조기구, 의사소통 보조기구 등 많은 종류의 보조기구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호이스트와 같은 보조기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1강 때 떡과 음료를 간식으로 수강생들에게 나눠드렸는데 2강 때는 빵과 우유를 간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대 많은 분들이 우유보다는 커피를 선호하셔서 그 점을 반영하여 3강부터는 빵과 차가운 캔 커피를 드리니 인스턴트커피를 찾는 분이 없어 진 점이 특이했습니다.



3강은 강우진 송의 여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님께서 권익옹호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다소 어려운 주제를 명쾌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서 미흡하지만 시민운동이나 집합행동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시각장애인으로서 사회활동을 하며 겪어야 했던 부당한 처우와 그로인한 인식의 변화 등에 대한 본인의 경험담을 말씀해 주셔서 장애인당사자로서 생각해 볼 점을 많이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강우진 교수님은 송의여대 가족복지학과 강의도 하시지만 강서구에 위치한 아름다운행동 센터의 운영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강의 중간 중간 들려주시는 본인의 생각이나 경험들에서 IL센터의 방향성과 활동가들의 조직력 등 현장에서 부딪히며 느낀 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익옹호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강우진 교수님의 한마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야 할 때 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하며 화내야 할 때 참고 화내지 말아야 할 때 화낸다.”

맞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할 때는 눈치만 보다가 편안한 자리에서만 본인의 자기주장을 열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이에 속하지 않나 반성을 할 수 있었던 한마디였습니다.

3강 때는 강우진교수님과 친분이 있으셔서 강북센터 소장님도 청강 해 주셨습니다. 호탕한 성격의 소장님답게 강의 후 수강생들과 화기애애한 담소를 나누며 분위기를 이끌어주셔서 아름답게 3강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26일 금요일에 진행된 4강의 강사님은 중증장애인 독립연대 윤두선 대표님이었습니다. 윤두선 대표께서는 말씀도 재미있게 잘 하시고 장애인당사자 강의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수강생들이 평이 제일 좋았습니다. 자립생활의 정의와 역사와 대한 강의였는데 장애인당사자 이념교육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립생활에 대한 강의로는 윤두선 대표가 가장 적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강의도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자립생활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제 생각과도 맞아 떨어지게 만족도조사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강의 중 4강의 평이 가장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1강에서 4강까지의 진행현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느낌도 있지만 벌써 총 8강의 강의 일정 중 반이 지났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악의 연대기 관람 후

전난희

지난 6월 3일에 실시한 7차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은 수유매가박스에서 영화 ‘악의 연대기’를 관람하였다. ‘악의 연대기’는 손현주를 비롯한 연기력이 짙은 배우들이 출연하여 개봉 전부터 보고 싶었던 영화였다. 이 영화에서 손현주는 특급 진급을 앞둔 최고의 상황에서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는 최반장 역을 맡아 자신이 진범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사망이 좁아질수록 불안에 떠는 최반장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몰입감과 긴장감을 전달하였다.

‘악의 연대기’를 만든 백은학 감독은 “손현주 배우의 표정에는 중압감과 우울함, 그리고 앙담함까지 모든 것이 담겨있었다”며 “손현주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전했다.



‘악의 연대기’는 특진을 앞둔 최고의 순간에 사람을 죽인 최반장이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담당자가 돼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하면서 더 큰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내용의 추적 스릴러 장르의 영화였다. 영화 상영 시간이 2시 20분이어서 이날 모인 회원 및 이용자분들과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준비한 햄버거와 콜라를 같이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며 영화 상영 시간을 기다렸다. 영화를 본 후 그날 오신 분들께 영화가 재미있었는지 여쭙보았더니 스피드한 극에 전개와 반전 스토리가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같이 본 강북센터 스텝으로서 영화 선택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오신 모든 분들께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포스터출처-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22535>  
 영화자료출처- <http://entertain.naver.com/read?oid=312&aid=0000086390>

팬텀 : 한국배우들이 최초로 연기 한 오페라의 유령

박남주

오늘은 자립생활주택 문화체험으로 뮤지컬 관람이 있는 날! 최초로 한국배우들이 연기하는 팬텀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정양균 선생님을 모시러 미아동 체험홈으로 향했다. 장애인콜택시가 늦게 잡혀 지각할까봐 걱정이 됐었는데 메르스 때문인지 너무 빨리 잡힌 장골 때문에 생각 외로 약속시간보다 일찍 총무아트홀에 도착해버렸다. 커피숍에 앉아 청포도에이드를 주문하고 수다 꽃을 피우는 시간! 센터이야기도 하고, 정양균 선생님과 농담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뮤지컬관람 전 화장실을 다녀왔다. 이미 몇 번 와 본적이 있는 공연장이라 정양균 선생님도 연신 “아, 나 여기 알아. 여기 와봤어요. 기억나요.”를 외치셨고 덩달아 나도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오페라의 유령은 사실 예전, 그러니까 한 2~3년 전에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외국배우들 공연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본 팬텀의 느낌과 한국배우들 버전의 팬텀은 어떻게 다를까 기대가 되었다. 자리에 앉아 매너 있게 핸드폰을 끄고 기다리니 조명이 꺼지고 드디어 공연 시작.



오페라의 유령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다. 꼬꼬리같이 맑고 청아한 목소리를 가진 여주인공 크리스틴은 우연한 기회에 필립 드 샹동 백작의 눈에 띈다. 백작은 리스틴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녀에게 오페라 극장의 극장장인 제라드 카리에르를 찾아가 음악레슨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제라드 카리에르는 새로운 극장장인 솔레와 그의 아내이자 디바인 마담 카를로타에 의해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그들은 음악레슨을 받기 위해 찾아온 크리스틴에게 레슨대신 카를로타의 의상관리를 맡긴다. 하지만 이 오페라 지하에는 팬텀이라고 불리는 유령이 사는데...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이하 생략) 뮤지컬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각자 공연관람 소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안선생님은 배우들의 목소리가 정말 꼬꼬리 같아서 좋았다고 하였고 정양균 씨는 자신의 스타일은 아니라며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박인 것은 ‘그분’의 소감이었다. (본인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시므로 ‘그분’으로 언급함에 양해를 구합니다.) 장애인당사자주의이념 전파에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그분다운 평이었는데 팬텀 스토리는 안면장애를 앓는 장애인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배우는거녕 평범한 삶도 살지 못한 부조리한 현실을 반영한 뮤지컬이라는 것이었다. 할, 대박~ 하는 일이 장애인 권리와 자립생활에 관한 일이라 나도 팬텀을 보며 저 사람은 안면장애인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까지는 생각을 발전시키지 못 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깥세상에서 어물리지 못하고 평생을 오페라 지하묘지에서 생활해야했던 팬텀. 2015년 현재, 많은 활동가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새삼 감사하는 자리가 된 문화체험이었다.

현실 에세이

김현실



장애인 당사자로써 차별 받는 세상에서 동정과 시혜를 받으며 여러 센터들을 전전공공 하면서 활동가대회, 장애해방학교, 자립아카데미, 동료상담, IL교육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걸 알고 주변의 권유로 사이버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전공부 사회심리학과에 접수를 하고 지원서를 보내고 여유롭게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생!! 마음은 벌써부터 떨리고 꼭 합격 되리라 믿으며 교육기회균등전형으로 장학재단에 2차 국가장학금A를 신청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에 대한 열의가 강했고 새 노트와 펜만 있으면 무언가를 써 내려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글쓰기, 사진, 사회복지, 건강, 이 관심사들은 첫째로는 자신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지식 나눔으로 여느 때와 같이 문예창작을 나갔고 제 옆에 계신 70대 어르신이 가까운 활채어 어르신에게 호되게 당했는지 앉아 있는 저를 아래부터 위까지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어, 쌀도 주고, 반찬도 주고, 신발도 주고, 웃도 핸드폰도”

‘이건 아닌데’ 더 이상 듣다가는 제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냐고, 직접경험 했냐고, 봤냐고, 한 사람을 두고 모든 장애인들을 몰아가지 말라고” 한 어르신의 잘못된 유언비어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 꼭 사회복지전공을 취득해서 소수자를 위해 귀를 열고 가르침과 억울함을 대변 하고자 열정이 가득한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눈과 귀를 열이라’ “장애인 혜택이 많은 게 아니라, 크게 나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로 소득인정에 달지 않는 시민이며 누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 되며 장애인이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생계비+주거비가 나오며 1.2급 중복 3급에 한해 장애연금만 나옵니다.”

“더욱 중요한건 내가 소득이 0원이라도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많으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여기에 가족구성원에 따라 급여가 다를 겁니다.” “또한 노인과 젊은이들의 혜택이 다릅니다.”

쌀은 정부미고 공짜가 아닌 생계비에서 20,000원~23,000원 삭감되어 나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가족 구성원에 2달 3달 정도에 따라 바뀔죠. 밑반찬, 사량의 김장김치 저는 받지도 못합니다. 우리 xx구는 독거노인이 많아 복지관, 주민센터 모두 독거노인 위주로 신청을 받습니다. 보장구 종류로는 다양하게 있는데 지체, 뇌병변 장애인에 한해 신청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회복지에 모르는 사람들 제발 유언비어로 소수자들을 비하하지 마세요. 장애인 복지혜택이 잘 되어 있으면 활채어장애인, 호흡기장애인들이 왜 화마로 돌아가시는지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해서 약자들만 죽어갑니다.

정부가 그만큼 모른다는 거겠죠.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겠죠. 진실은 항상 숨어 있어 누가 파해 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제발 알고 말합시다. 저에게 사회복지의 꿈이자 삶의 전부입니다.

7월부터 맞춤형 복지로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합격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계기와 소수자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미덕을 갖추는 내가 되길.

제발 교육받을 기회를 주세요.

장애인파파라치

이하용



◀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 휠체어장애인들은 들어가기에 어려움이 있다.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경사로 위에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장애인들은 들어가기가 힘들다.



◀ 점자 보도블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언 듯 보기에는 턱이 없어 보이나 낮은 턱이 있어서 휠체어장애인들이 오고가기가 위험하다.

“시설에서 지역으로!”

# 회원가입서

※ 아래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인(서명)

신청인	
생년월일(양/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직장 : <input type="checkbox"/> 자택 :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
장애유형	
장애급수	
집 주소	
직장주소	
직장명	
우편발송	<input type="checkbox"/> 집 <input type="checkbox"/> 직장
전자우편	
가입동기	<input type="checkbox"/> 지인소개 <input type="checkbox"/> 메스컴 <input type="checkbox"/> 행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 약정 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p>※ CMS출금이체 동의서(회비 자동이체 신청서)</p> <p>본인은 CMS 출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출금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      인(서명)</p>	
출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주민번호	
이체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만원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input type="checkbox"/> 25 일



## “전동스쿠터 후원 받습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지숙회원이  
전동스쿠터 고장으로 집밖외출 등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스쿠터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  
새 스쿠터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에 안 쓰는 전동스쿠터가 있으신 분!”  
“보관 중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처리고민중인 전동스쿠터가 있으신 분!”  
“새 스쿠터를 마련해 주실 분!”

이지숙회원의 다리가 되어줄  
스쿠터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문의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락처 : 02-908-7776  
핸드폰 : 010-4657-0471